

포스코 노동자, 50년 무노조 깨고 금속노조 깃발 올려

13일, 금속노조 가입 보고 기자회견... “ILO기준과 공정·정의 시대정신 따라 노조가입”

포스코 노동자들이 50년 무노조 경영을 무너뜨리고 금속노조 출범을 선언했다. 하얀 가면을 쓰고 기자회견장에 들어온 포스코 노동자들은 출범선언문을 함주어 읽어내려갔다.

금속노조와 포스코 금속노조 가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9월 1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포스코 노동자 금속노조 가입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위원회는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설립한 포스코는 지난 50년 동안 제철보국이라는 이름 아래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과 노동자의 기본 권리인 노동삼권조차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추진위원회는 “노동자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가치를 실현하는 국제노동기(ILO)의 기준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노사 공동의익에 기반을 둔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하는 포스코 노동조합을 설립한다”라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금속노조 가입과 출범을 알리며 ▲노동삼권 보장과 노동탄압 중단 ▲권위적



이고 억압적인 노무관리 중단으로 평등과 존중의 노사문화 창립 ▲지난 시간 정당한 노조 활동과 기업의 정의를 위해 싸운 분들의 명예회복 ▲책임경영 실패와 바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영권 승계 시스템에 대해 노조와 협의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의회 임금협상에서 노동자 요구 수용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포스코 민주노조 건설에 착수했음을 앞서간 이들과 동지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보고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직 가입을 주저하는 포스코 노동자들에게 당부한다. 산별노조이탈로 진정한 용광로다. 제철 조선 자동차, 전지의 18만 조합원이 포스코 노동자들을 기다린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운명을 걸고 금속노조를 선택한 포스코 노동자들을 18만 조합원을 대표해 환영한다”라고 인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포스코 노동자들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금속노조를 선택했다. 금속노조는 앞으로 1년 안에 포스코 무노조 경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한 노조를 만들겠다”라며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포스코 노조 설립을 지원해 온 법률자문단 권영국 변호사는 “산업재해를 당해도 제철보국이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장계를 받던 포스코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어서 노조를 만들었다. 이제 우리는 포스코 민주노조 건설을 통해 반노동 무노조 경영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라며 결의를 세웠다.

권영국 변호사는 “포스코 자본이 복수노조, 일명 대항노조를 통해 노조괴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포스코 자본과 정부는 노조를 왜곡하기 위한 불법행위를 중단하라”라고 경고했다.

“노동삼권은 사회의 상식이고 미래”

노조 서울지부 투쟁사업장 집중투쟁... “집권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 권리 보호 나서라”

금속노조 서울지부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최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집권당으로서 책임지고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노조 서울지부는 9월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투쟁사업장 재벌 갑질, 사장 갑질 근절 서울지부 집중투쟁대회’를 열었다. 지부와 투쟁사업장 여성조합원들

은 “이 시대 율(乙) 중의 율(乙)인 최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삶을 집권당이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입을 모았다.

지부는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어느 곳도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결국 집권당인 민주당까지 왔다”라며 민주당에 면담을 촉구했다.

집중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에서 면담 하겠다고 알려왔다. 투쟁사업장 대표들이 민주당사에 들어가 노동국장과 면담했다. 민주당은 면담요청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둘러대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한 명이 3개 투쟁사업장을 담당하게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첫 공동파업 전개

충남·광주전남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32시간 파업... “범죄집단 현대자동차그룹 전면 수사하라”

금속노조 철강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2018년 임금·단체협약 투쟁 승리 결의와 불법과견 은폐, 노조파괴 범죄 현대자동차그룹 전면 수사를 촉구하며 공동 파업을 벌였다.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순천)는 9월 11일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2018년 투쟁 승리 당진·순천 공동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현대제철 당진과 순천공장 비정규직 조합원 4천여 명이 이날 32시간 첫 공동 파업을 벌이고 상경했다.

두 지회는 이날 출정식에서 “지금 한국에서 비정규직은 고용형태가 아니라 사회 신분이 됐다. 한 공장에서 같은 제품을 만들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두 지회는 “현대제철 원장은 차별을 없애기는커녕 법원의 ‘현대제철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는 불법과견에 해당한다’라는 2016년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홍승완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지회장은 투



쟁사에서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임금과 복리후생을 축소해 올해 임단협을 타결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해소와 동일 복리후생을 위해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조합원들은 ‘불법과견 은폐, 노조파괴, 원청사용자성 은폐, 블랙리스트 작성’이라고 쓴 조형물을 불로 태웠다. 조합원들은 당진, 순천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으로 임금 격차 해소와 복리후생 동일적용, 2018년 임단투 승리를 다짐하며 공동파업 출정식을 마무리했다.

두 지회 조합원들은 출정식을 마치고 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한 뒤 ‘불법과견 은폐, 노조파괴 규탄, 현대차그룹 전면 수사 촉구 결의대회’를 이어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금 거제에서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식당 노동자들의 파업에 함께하고 있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힘을 합치면 노조의 힘은 더 커질 것이다”라며 공동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제 청와대는 불법과견 문제에 대한 태도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금속노조는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주요협약 비준 투쟁과 노동법 전면 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병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이 마지막 투쟁사에 나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적폐 청산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총파업 투쟁은 임단협 투쟁 승리를 넘어 현대차그룹과 현대제철이 자행한 불법 과견을 끝장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파업을 성사한 당진과 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힘차게 파업가를 부르며 현장으로 돌아갔다.

“정몽준 아들 정기선 위한 구조조정 중단하라”

현충지부 부분파업·상경투쟁... “수주잔량 회복했다. 비정규직 늘리기 희망퇴직 규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희망퇴직 중단을 요구하며 9월 12일 부분파업을 벌였다. 현대중공업지부와 함께 조선업종노조연대 소속인 노조 광주전남지부 현대삼호중공업지회와 대우조선노조도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과 간부들은 9월 1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 현대중공업 본사 앞에서 ‘임단투 승리 성실 교섭 촉구, 구조조정 분쇄, 희망퇴직 반대, 현종재벌 갑질

횡포, 구조조정 규탄 대회’를 열었다. 지부는 같은 시간 울산에서 시청 앞 파업대회를 열고 희망퇴직과 무급휴업 중단을 요구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까지 행진했다.

현대중공업 자본은 해양사업부 물량이 없으며 지난 달부터 공장기동을 중단하고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 남은 인력 1천 200여 명에 대해 평균임금의 40%만 지급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했다.

지부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선박수주액이 35억 달러로 지난 해 대비 93%나 증가했고, 현충 자본은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2조 원 이상 갖고 있어 구조조정할 이유가 없다며 사측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부정했다. 지부는 이번 구조조정은 “하청노동자를 늘리고 노조와해를 통해 정몽준의 아들 정기선 부사장이 경영세습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꼬집었다.